

생존수영 배우긴 해야 하는데... “어쩌나” ...우레탄 유해성 알고는 있는데

광주·전남교육청이 학생들 안전 문제로 노심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수영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진행된 ‘생존 수영’의 경우 학생들 체력에 적합한 수영장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학교 우레탄 트랙 문제도 정부의 허술한 대처 방안이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다.

◇**초등 3~4학년 키에 적절한 수영장 어디?** =전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생존 수영’을 실시하는 도내 수영장 수심 및 수위 조절 가능 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최근 인천 A초소년수련관 수영장(수심 1m 30cm)에서 갑갑했던 초등 1학년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학생 키 수영장 수심과 비수 수심조절 가능한 곳 드물어 안전사고 문제 노심조사

생존 수영은 수영을 못해도 자체 부력으로 1~2시간 물에 떠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등학교 3~4학년 평균 신장을 감안할 때 수심 90~100cm가 교육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심 60~70cm인 유아풀의 경우 물놀이 수준의 교육으로 영법 및 생존수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지난해 전남 초등 3학년 평균 신장은 131.6~133.8cm, 4학년은 138.8~139.4cm.

도내 수영장 수심(120~130cm)과 학생들 신장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남의 경우 5개 지역(보성·담양·함평·완도·신안)은 수영장이 없고 그나마 수영장이 있는 지역도 수위조절판 설치 등 여건을 갖춘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광주교육청도 초등 3~4학년 평균 신장(132.5~139.8cm)을 감안, 광주 구립 수영장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남부대 수영장을 제외하면 수영장 수심이 깊고 수위조절판 등도 없어 수영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는 이같은 점을 감안, 올 3~4학년 학생 3만483명의 생존수영장으로 남부대 수영장과 광주체육·수창초교·광주학생교 육문화회관을 선정해 이용중이다. 광주교

광주 40개교 트랙서 중금속 전남도 217개교 전수조사 사용 여부 놓고 불안·혼선

유청은 그러나 내년 5학년까지 생존 수영 교육을 확대할 경우 수영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레탄 트랙 써도되나** =유해성분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사용 여부도 대처 방안이 제각각이라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광주의 경우 최근 우레탄 트랙을 보유한 44개 학교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 40개 학교에서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는 그러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우레탄 트랙 바닥에 앉지 않기’, ‘학생 체육 활동 후 손씻기’ 수준의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전남도 217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올 때까지 바닥에 앉지 말고 체육활동 후 손씻기 등의 교육부 조치를 안내한 상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음에도 개·보수나 재설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10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과 맞물리면서 교육부가 원칙을 세우지 않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승합차 몰고 음주운전 1·2중 면허 모두 취소” 광주고법 판결

1종과 2종, 2개의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를 2개 모두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환)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9%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9인승 승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1종 대형자동차, 2종 보통자동차 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은 2종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승합차인데, 생계 수단인 관광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면허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A씨가 운전한 9인승 승합차는 1·2종 모두 운전이 가능한 차량으로, 음주운전 취소 사유가 두 면허 모두에 공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성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면허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예방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당 관계자들이 취업사기 가담

광주경찰청, 브로커 등 3명 적발 거액 채기고 1명도 취업 못시켜 피해자들 신고로 범행 들통

여야 정당 관계자들이 취업 사기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채긴 혐의(사기·일선수제)로 브로커 이모(46)씨를 구속하고, 전남 지역 정당 관계자 박모(46)씨와 이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야당의 당직자이고, 이씨는 여당의 전 노동위원을 지냈다.

브로커 이씨는 지난 2013년 5월1일부터

2014년 12월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서구청, 광주시체육회, 기아자동차 등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최대(48)씨 등 6명에게 2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야당 원내대표 보좌관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받아낸 2억 7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취업 청탁 대가로 야당 당직자인 박씨에게 건넸고, 박씨는 이 중 8000만원을 야당 당직자였던 이씨에게 주며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1억3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을 챙긴 뒤 회사 운영비나 유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단 1명도 원하는 곳에 취업을 시켜주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취업을 확인하고 농업 계약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주거나, 받은 돈의 이자까지 계산해 되갚으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맥을 통해 돈만 주면 쉽게 공공기관·대기업 등 좋은 직장에 취직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큰 돈을 건넸다”며 “채용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불신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여서 쓸쓸하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또 전남지역 모 대학 설립자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교수 채용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채긴 혐의(사기)로 위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청포도 따는 아이들...청포도보다 더 풋풋하네



21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 포도재배 하우스에서 열린 포도 따기 체험에 참가한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탐스러운 청포도를 들고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피스텔 중복분양’ 시행사 대표 구속 신탁사 공모 여부·은닉자금 규명 관심

500여명 300억~500억 피해 추정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를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이 오는 2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밝힌 가운데 사건의 핵심 의혹인 신탁사 공모 및 은닉자금이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서부경찰은 지앤디도시개발(주) 대표 박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도피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18일 자수했지만, 범원은 박씨가 도주전력이 있는데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신축한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과 짜고 중복분양, 다수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시행사 임직원,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의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자는 500여명, 금액으로는 300억~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기 사건의 물통격인 박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의혹 규명은 더디지만 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가로챈 금액의 상당부분을 기존의 부채를 갚는데 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은닉자금을 발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버스 추월 난폭·보복운전 광주광산경찰, 50대 입건

광주광산경찰청은 21일 자신의 앞길을 막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를 추월해 난폭·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로 조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16일 밤 10시20분께 광산구 송정동 광명 입구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이모(44)씨의 21인승 미니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50m 가량 급정거와 저속 운행을 반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이씨가 양보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출소 후 이틀에 한번꼴 절도행각

○...삼승절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30대 남성이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출소 직후 또 다시 주태가를 돌려 이틀에 한번 꼴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쇠고랑.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허모(31)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1시 10분께 북구 중흥동 김모(여·76)씨의 집에서 36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반지를 훔치는 등 최근 2달 동안 모두 26차례에 걸쳐 19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허씨는 지난 4월2일 출소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 다시 절도 행각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허씨는 가족이나 집 주인이 외출하는 것을 지켜본 뒤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男	女		男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7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핀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6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부처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1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인빌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